만나봅시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상임대표 김재홍 교수

"만해스님 자유평등사상 방황의 시대 생명수"

"만해스님은 사상이나 실천력, 높은 지조정신, 위대한 문학적 성과등 어느모로 보나 그를 뛰어넘을 인물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민족의 사표입니다. 그분이 선구한 자유·평등정신 민족·민중정신 진보·통일사상, 평화사상 등은 오늘날 우리의 분단현실에서 나날이 소중한 민족의 덕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는 만해스님과 같은 인물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만해의 높은 사상과 문학적 성과를 기리기 위해 교계 내외 만해사상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발족한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상임대표 김재홍교수(경희대)는 "역사속에 박제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민족의 위인, 국민시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한다.

'님의 침묵'이 쓰여진 유서 깊은 고찰 백담사가 단지 유배지 정도로 세인에 알려진 것을 안타까워한 오현스님(신흥사 회주)의 원력으로 만해스님의 열반 52주기인 지난 6월 29일 백담사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공식 발족됐다. 운영위원장에 백담사 주지 마근스님, 총재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공동대표에 지홍스님(낙산사 주지) 김규칠교수(언론인)와 김재홍교수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불후의 명작 '님의 침묵'이 쓰여진 백담사에 본부를 두고 만해당과 만해기념관도 건립하고 있다. 완공되면 스님의 유품과 '님의 침묵' 판본등 만해스님 관련 각종 기념물이 상설전시될 예정.

'만해선양회'가 계간으로 낼 기관지 〈만해새얼〉의 발행겸 편집인도 맡은 김재홍교수는 〈만해새얼〉지 발간후 전국순회 강연을 가져 단순히 종교인 또는 문학인으로만 알려져 있는 만해스님에 대한 고정인식을 타파시키고, '불교계만의 만해'가 아닌 '전국민의 만해'로서 총체적인 선각자로서의 진면목을 새롭게 부각시킬 계획이다.

〈만해새얼〉 창간호에는 △이 시대 만해를 다시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만해시 △만해전기 등 한용운스님을 다각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특집이 실린다.

김재홍교수는 이외에도 현재 한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시어(詩語)사전〉이라는 대작업의 막바지 원고점검에 눈코 뜰새가 없다. 지난 4월 출간 예정이었으나 자꾸만 새로운 시어들이 추가되는 바람에 늦어졌다. 국내최초인 이 방대한 작업에 뛰어든 것도 〈만해 한용운 문학연구〉로 박사논문을 쓰면서부터.

"만해의 시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많이 만났지만 사투리사전을 뒤져도 끝내 알수 없는 말들이 적지않아 결국 충청도 촌로들의 자문을 구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만해의 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용례를 찾아 대비한 끝에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며 그뒤부터 시를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적어두는 버릇이 생겼고 마침내 〈시어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빼어나게 구사한 서정주 김소월 김영랑 고은시인 등으로부터 박용수 김정환 등 젊은 시인들의 최근 시집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전에 나오지 않는 시어 2만5천여개를 표제어로 삼았다. 오는 10월 출간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만해스님탄신 117주년 뜻 기리는 행사 다채

만해 한용운스님 탄신 117주년(8월 29일)을 맞아 어록비제막 향토축제 뮤지컬 등 스님의 사상적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8월14일 홍성 '만해제'

○…만해스님의 고향인 충남 홍성군 홍성문화원은 오는 8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홍성군 일원에서 제2회 만해제를 개최한다.

광복 51주년과 문학의 해를 기념해 한용운스님의 독립정신과 뛰어난 문학세계를 조명해보는 만해제는 14일 전야제 만해문학의 밤, 15일 길놀이 독립만세운동재연극 기념식 추모영산재, 16일 백일장 대동제 등의 행사가 벌어지고 13일부터 17일까지 문화원 전시실에서 〈님의 침묵〉 시집전시, 만해영상슬라이드쇼, 시화전 등이 열린다. 또한 전국 유치원 원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도 펼쳐진다.

독립기념관에 어록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조계종 총무원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후원으로 오는 8월25일(추후 변경될수 있음) 천안 독립기념관에 만해스님어록비 제막식을 갖는다. 높이 5미터 너비 4.5미터의 오석에 새겨질 내용은 만해스님이 1919년 옥중에서 쓴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비의 뒷면에는 스님의 연보가 새겨진다.

대불청은 지난 89년 독립기념관에 만해스님어록비를 세운바 있으나 비의 위치가 너무 구석진 곳에 위치한 데다 내용에 오자가 있고 글씨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 독립기념관측으로부터 보수 및 교체 요청을 받아 지난 93년부터 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번에 제막식을 갖게된 것.

'님의침묵' 뮤지컬로

○…만해스님의 일생을 뮤지컬로 꾸민 '님의 침묵'이 극단 신시뮤지컬컴퍼니에 의해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 오는 9월1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되는 '님의 침묵'은 83년 초연 후 13년만에 재공연되는 것. 초연때 연인원 5만명이상이 관람하는 등 호평을 얻은 '님의 침묵'은 김상렬(연출) 유승엽(음악) 김갑수(만해스님역)씨가 다시 힘을 합치고 특히 세사람 모두 불자란 점에서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상징적인 무대와 격정적인 선율, 록뮤직에 의한 빠른 무대회전 등 새롭게 재창조되는 뮤지컬 '님의 침묵'에는 방주란 최주봉 김길호 김기섭 이창훈 등 베테랑급 배우들이 출연한다. '님의 침묵'은 제 20회 서울연극제에도 출품된다.

창립사업 백담사에 만해당등 건립
'만해새얼' 발간…시어사전도 준비

불심시심 〈57〉

숫돌인양 평평한 길

遙指寄邦落日邊 (요지기방낙일변)	멀리 보이네, 국토 끝 해지는 변경
路平如砥直如絃 (로평여지직여현)	숫돌인 양 평평한 길 활줄처럼 곧다
歸時冉冉金臺至 (귀시염염금대지)	가는 때 뚜벅뚜벅 황금누대 이르고
生處田田玉藕圓 (생처전전옥우원)	사는 곳 둥글둥글 흰 연꽃 둥글다
但自一心心不亂 (단자일심심불란)	다만 스스로 한마음, 마음 흐트리지 않고
休論十念念不專 (휴론십념념불전)	수시의 염불에도 오롯하지 못한 염불
從來敎主深悲願 (종래교주심비원)	처음부터 부처님의 깊은 자비 소원을
爭奈吾人却步前 (쟁내오인각보전)	우리는 한 발씩 앞에서 멈추니 어쩌나

이 시는 백암선사 정토찬 백수의 연작에서 맨 첫째 수이다. 정토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이르려는 마음가짐을 노래하였다. 삶에는 유형 무형의 길이 많다. 하루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움직임의 모든 것이 유무형의 길이다. 이 길은 길이 길을 낳아 한없는 길로 이어진다.

정토로 가는 길은 숫돌보다도 더 평탄하고 활줄처럼 곧은 길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길이란 곧기보다는 굴곡이 많음이 일상적이나 이 굴곡을 두려워한다. 이 굴곡을 두려워 않고 모험을 하는 이가 성공에 빨리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림살이에 있어서 이 정토의 길보다 더 안전한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 가는 걸음 걸음이 황금 누대로 가는 길이나 염염이란 표현은 여유 있는 걸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걸음이 매우 경쾌함을 이른 것이다. 이 정토를 향하는 걸음이 평생을 걸었던 어느 발길보다도 가벼운 걸음임을 알 수 있다. 갈 곳은 연꽃의 아름다운 동산이다. 田田이란 연잎의 둥근 모형을 의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곳을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전일해야 한다. 생각생각도 오롯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평상인의 마음은 항시 전일하지가 못하며 자비소원안에 들려 하다가도 짐짓 딴 마음으로 그 소원이 무너지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또한 경계해야 할 점이다. 한평생 정념의 생활을 하고 이제 황혼의 인생길에서 다시 더 정토에 대한 갈구로 시를 쓰는 노스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음미하게 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통일기원 전국순회 연주회

8월7일 제주 시작 15일 임진각서 회향

교계 유일의 전문 소년소녀합창단인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단장 황학현)이 광복 51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기원하기 위한 전국순회 연주회를 갖는다.

8월7일 제주에서 시작해 8월15일 임진각에서의 회향까지 1주일간 실시되는 전국순회연주는 각 지역의 사암련과 청년회와 연계돼 실시된다. 연주회에서는 '파랑새 울고' '내마음 연꽃' 등 찬불가, 한민족의 숨결과 정서가 아로새긴 전래동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강산' 등 통일의 노래, 7천만 겨레가 함께 부를 수 있는 한국민요등 20여곡을 편성하여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소망을 음악으로 승화시킨다.

8월7일 제주문예회관, 9일 부산문화회관, 11일 대구시민회관, 12일 광주원각사, 15일 임진각에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는 한국불교소년소녀무용단 10여명이 펼치는 부채춤 화관무등의 공연도 들어있다. 지휘 민선희씨. (02)725-7527

◇8월 7일 제주에서 시작해 15일 임진각에서의 회향연주까지 통일기원 전국순회공연을 갖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연대박물관 전용전시관 '印殿' 개설 안광석씨

"자식같은 전각·서예 대중회향"

6백여 작품 기증…가을부터 일반 공개

"내 분신처럼 아끼던 작품들이라 어디 잘 보존해 줄 곳을 줄곧 찾고 있었는데 연세대박물관과 인연이 닿은것 같습니다." 전각가 안광석옹이 평생을 자식처럼 아끼던 작품들을 대거 연세대 박물관에 기증, 전용전시관 '인전(印殿)'을 마련한다. 오는 가을부터 상설전시에 들어갈 예정이라 그 준비에 한창인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소장했던 도장 5백여개 판각 30여개 서예 30여수가 전시된다.

또한 그동안 안옹이 가까이에 두며 돌과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데 쓴 철필들도 함께 전시한다. 작품들을 박물관에 보내는 심정은 마치 딸을 시집보내는 것처럼 시원섭섭하나 종립 동국대에 보내지못한 아쉬움도 작지 않다.

연대 개교 112주년이 되는 내년 5월, 박물관에서 청사(晴斯, 안광석옹의 호) 개인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가 팔순인 안옹은 최근 갑골 종정문과 암화를 모은 전각·서각집 〈장지은허삼종(藏之殷虛三種)〉도 출간했다.

해방전 중국에 가서 암화(岩畵)를 탁본한 것도 정리해 이번에 같이 묶었다. 갑골관계 서로는 한국서 처음 나온 책으로, 안옹이 그 수려한 글씨로 직접 써서 축소해 넣은 해설문이 더욱 이채롭다.

한편 안광석옹은 오는 9월부터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매주 한번씩 전각·서예를 가르친다. 〈숙〉

강익중씨 작품 목각부조 8천여점 美 현대미술관에 영구소장

◇강익중씨

'붓다를 찬양하며' '영어를 배우는 붓다' 등 불교를 주요 소재로 하여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는 재미조각가 강익중씨 〈본지 70호13면 보도〉의 목각부조 8천여점이 미국 서부의 가장 영향력있는 현대미술관 LA MOCA(Museum of Contemporary Art)에 영구 소장된다.

3인치 화폭에 일상의 흔적이나 단상을 담은 독특한 작품으로 백남준 이후 국제미술계에서 한국을 빛낼 유망주 가운데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강익중씨는 동양과 서양의 융합위에 현대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성공적으로 포착한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문화소식

범일스님 수묵전

범일스님(부산 용화선원)이 '사유하는 삶 그리고 얼굴'이란 주제로 오는 8월 10일까지 부산 정인갤러리(051-248-9090)에서 수묵화 전시회를 갖는다.

전승공예출품작 공모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김전배)은 오는 10월 경복궁 전통공예미술관에서 열리는 제21회 전승공예대전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전승공예기능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전승공예대전은 금속 도자 옥석 초고 직물 지물 염색 피·모·각·목·죽·칠공예 등 전통재료 및 기법으로 제작한 전통공예 전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02)739-5987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00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부	•야간부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부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부	•통신부		
중 국 어 과	2년	•주간부	•야간부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부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부	•통신부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대전문경서적: 252-8558, 부산불교서적전시관 : 632-7393,
대구제일서점: 424-0801, 마산학문당 : 46-2925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중국명문한의대 고급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대학: 남경중의약대학
-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 8박9일
-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간염, 좌골신경통 침치료, 비만치료 기공등
- 연수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수료증 수여
- 인원 : 15명 이내
- 출발일 : 1996년 8월 15일 (목)
-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 - 2026 ~ 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베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